

한일홀딩스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시멘트 소성 설비 등 친환경 분야 5276억 투입

〈2027년까지〉

친환경 지속가능경영 집중
소성 공정 순환연료 비중 확대
“온실가스 감축 지속해 나갈 것”

한일이 오는 2027년까지 시멘트 친환경 설비 등에 총 5276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시멘트 제조 핵심인 소성 설비 개조 프로젝트에만 3687억원을 쏟는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등 친환경 지속가능 경영에 더욱 집중한다.

8일 한일홀딩스가 발간한 ‘한일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그룹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79만2315이산화탄소환산톤(tCO₂-eq)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시멘트 사업에서만 전체의 98%가 넘는 667만3691tCO₂-eq를 배출했다.

시멘트 등 건설자재, 건설, 상사, 투자, 레저 부문에 걸쳐 9개 계열사로 이뤄진 한일그룹은 현재 시멘트 계열사로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가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일시멘트가 전년보다 16.1% 감소



한일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 Way' 표지

/한일홀딩스

한 366만8271tCO₂-eq, 한일현대시멘트는 7.6% 늘어난 312만4044tCO₂-eq를 각각 기록했다. 한일현대시멘트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에 늘었지만 클링커 생산 단위 톤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회사는 앞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5호 소성로(2023년 3월),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2호 소성로(2024년 1월)에 대한 설비 개조를 끝냈다. 또 폐프라스틱, 칩타이어 등 순환연료 투입량을 높이기 위해 새틀라이트 버너(Satellite Burner) 투입 시스템을

설치했다.

에너지 효율 증대 등을 위해 고온의 클링커 온도를 낮추는 냉각기도 ‘5세대 최신 롤러’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렇게하면 기존에 65% 수준이던 열 회수율을 70~80%까지 높일 수 있어 소성로 배출온도를 250℃에서 100℃로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고온의 클링커가 시멘트 분쇄기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사 관계자는 “소성로 설비 개조로 유연탄 사용량을 3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약 3만6000t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은 유연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순환연료 비중도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년 당시 32% 수준이었던 소성 공정에서의 순환연료 에너지 기여율을 올해 45%까지 올리는게 목표다.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는 기술 연구소를 중심으로 CCUS 국책과제에 참여하는 동시에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 수립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2년 CCUS 프로젝트팀을 꾸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30년께면 CCUS 기술이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근식 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면서 “소성로 개조, 폐열 발전 설비 신설 등 ‘ECO 프로젝트’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친환경 설비투자는 한일이 추진해 온 저탄소 전환 노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연료 전환, 폐열 회수, 폐자원 순환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화오션

찰스 드류함 MRO 수주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또 한 번 수주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수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령의 협력 요청 이후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달 초 미 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인 찰스 드류(Charles Drew)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

찰스 드류함은 화물과 탄약 등을 보급하는 비전투함으로, 배수량 4만1000톤(t), 길이 약 210m, 선폭 32m의 대형 선박이다. 이는 한화오션이 앞서 수주했던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과 동급의 규모로, 계약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백억원으로 보인다. 찰스 드류함은 7월 중순에 입항해, 4분기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귀뚜라미

‘따숨케어’ 렌탈 서비스

귀뚜라미가 현대렌탈케어의 현대큐밍을 통해 가정용 보일러 렌탈 서비스 ‘따숨케어’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따숨케어’는 귀뚜라미의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를 초기 구매 비용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합리적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현대렌탈케어 제휴 신용카드 렌탈요금 자동납부를 할 경우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월 2만5000원까지 렌탈요금을 할인해준다.

아울러 ▲5년 무상 A/S 제공 ▲연 1회 정기 성능 점검 ▲24시간 이내 고장 대응 등 차별화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깨끗한나라 ‘보숨이’

‘리얼코튼 오가닉’ 출시

깨끗한나라가 피부자극을 최소화한 프리미엄 기저귀 ‘보숨이 리얼코튼 오가닉’을 새롭게 출시하며 지마켓 단독 판매를 시작한다.

생활 혁신 솔루션 기업 깨끗한나라가 영유아 케어 브랜드 보숨이의 신제품 ‘리얼코튼 오가닉 기저귀’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오는 11일부터 지마켓을 통해 단독 선출시되며, ‘슈퍼브랜드 데이’를 맞아 2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보숨이 리얼코튼 오가닉 기저귀’는 민감한 아기 피부를 고려해 고급 원사와 유기농 자재를 적용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피부에 닿는 안감에는 머리카락 굵기 6분의 1 수준인 1.2데니아 원사를 사용해 부드러운 착용감을 높였으며, 유기농 순면과 시어버터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다. /최빛나 기자

여성기업, 구조적 장벽 여전... 성장 중심 정책전환 필요

자금조달 등 고도화 단계에서 한계
“스케일업, 시장 진입기반 마련 절실”

여성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여성 창업자들은 자금 조달, 수익성, 네트워크 연결 등에서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다. 실태조사 수차례에서도 이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서 바이오 소재 스타트업 운영 중인 김모 대표는 창업 3년 차에도 자금 유치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출은 늘었지만, 투자 얘기가 나오면 문턱이 너무 높다”며 “제품 설명보다 창업자의 이미지나 외적 요소에 대한 질문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 31.7%는 자금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고, 실제로 90.8%는 정부의



박창숙 여성경제인협회장(왼쪽 첫번째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김성섭 중소기업부 차관이 열쇠를 꽂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손뼉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자금 지원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익성과 활성도를 나타내는 순이익률(3.5%)과 자기자본 회전율(1.5회)은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여성기업 5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부채비율은 123.1%로 전년보다 12.1%포인트 감소했고, 1인당 매출도 208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초 체력은 올라왔지만, 고도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김모 교수는 “여성 창업기업이 기술력과 안정성을 확보해도 시장 접근이나 스케일업 투자 유치에서는 여전히 불리한 구조에 있다”며 “성장 구조 자체가 성별에 따라 차등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성벤처협회는 하반기부터 산업별 전문가와 여성 CEO 간 1:1 매칭 방식의 ‘W-멘토링 랩’을 확대하고, 실질적 조언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

중기부, 중소기업 ‘제3자 승계’ 돕는다

“특별법 제정 등 정책적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녀 등 후계자가 아닌 중소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승계를 돕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관련 지원 인프라 구축도 더욱 강화한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후계자가

아닌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성공한 사례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와 기보에 따르면 지난달 M&A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형 M&A 2건이 성사됐다. 두 기업은 M&A를 통해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인계하는 동시에 종업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기보는 M&A 피인수 기업과 인수희망 기업의 경영진 면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M&A 컨설팅을 제공했고, 인수 자금을 위한 보증지원으로 M&A 성사를 뒷받쳤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M&A지원센터’를 설치해 일반 M&A 지원 뿐만 아니라 자녀 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

다. 이를 위해 ▲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M&A 파트너스네트워크 구축 ▲M&A 보증 ▲기술보호(TRS 등) 등 원활한 제3자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이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